출판저널 칼럼

고전을 읽는 즐거움

류달영
서울대 명예교수·성천문화재단 이사장

인간은 육체와 정신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육체가 없는 인간이나 정신이 없는 인간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 근래에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이 70을 넘어서게 되었다. 내가 중학교에서 공부할 무렵만 해도 평균 35세 가량이었다. 인간의 나이 70세는 고래로 드문 일이라는 옛시인의 문구는 한자문화권에서는 지금도 통용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 일반인들의 평균수명이 70세가 넘고, 이웃 일본 여성들의 평균연령은 80이 넘을 정도로 장수하게 되었다. 충분한 영양과 과학적인 생활환경 개선, 그리고 보건위생 지식 향상과 세심한 건강관리 등으로 인간의 건강의 이렇게 향상된 것이다.

그런데 정신 분야는 어떠한가? 풍요한 생활 속에 잔인한 범죄는 끊일 날이 없고, 인간소외의 삭막한 풍조는 세계를 휩쓸고 있다. 사람들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각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정신의 양식에 대해서는 아주 등한하다. 육체의 주인이 바로 정신인데 말이다. 하루 세끼 식사만큼 정신의 영양과 청결을 위해 힘쓰는 이는 얼마나 되는가? 孟子가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닭 한마리를 잃어버리면 그것을 찾고자 온 동네를 헤매며 법석을 떨지만 가장 중요한 자신의 정신을 잃어버렸어도 태연하게 지내며 살아간다"고 풍자하였다. 오늘날에도 크게 어긋나지 않은 통찰이다.

정신에 영양을 공급하는 최선의 방법은 인류의 영원한 문화유산인 고전을 읽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신계의 綠化는 고전읽기를 통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경제적 발전에 이어 정신문화의 질적 혁신을 달성해야 하는 당면과제를 성취하는 지름길은 책 속에, 그중에서도 고전 속에 있다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나는 네살 때에 千字文을 배우면서 평생을 고전과 벗하여 왔다. 인류의 정신적 영양의 보고인 고전을 영양식으로 하지 않고서 성장한 인간들은 따지고 보면 모두가 영양실조로 정신적으로 허약한 인간들이다. 고도의 文化人間과 고도의 文化歷史,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구현하여야 할 값진 목표이다.

우리가 먹는 과일들의 우량품종은 예외없이 야생나무 뿌리를 대목으로 하여 접목한 것들이다. 지금 세계 각지에 2만여 품종이 넘게 퍼져 있는 화려한 장미들도 모두 야생 찔레의 뿌리에 접한 것이다. 또한 세계 제일의 품질을 자랑하는 한국 사과인 후지도 그 뿌리는 도토리보다 작은 열매를 맺는 야생종 나무인 매조의 일종이다. 그처럼, 인간도 바르게 자라 충실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야생나무에 해당하는 고전에 접목해야 한다.

인간이 정신적으로 巨木이 되려면 좋은 선생을 만나야 하는데, 우리는 동서고금의 대스승을 그들이 남긴 저서인 고전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인간이 접목할 정신의 대목이 될 만한 것은 반드시 고전에서 찾아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값지고 풍성한 삶을 위하여 우리는 고전공부를 알차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 고전에는 인간의 고귀한 경험이 응축되어 있고,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지혜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그 책들은 과거에 국한된 서적이 아니라 영원한 현재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百萬事가 배우는 것 이상으로 슬기로운 것은 없다. 전국시대 각지를 떠돌아 다니던 孔子는 사람으로서 가장 보람있는 일 중 첫째로 '배우는 즐거움(好學)'을 꼽았다. 나는 그 배움이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봉사하는 즐거움(爲公)'과 함께 짝을 지움으로써, '好學爲公'을 나의 좌우명으로 삼게 되었다. 이에 따라 나는 평생 책을 가까이 하기에 힘썼다. 책은 내 인생의 도반이다.

올 여름에는 東西의 고전을 통해 지혜로운 先人들과 대화를 나누며 정신을 살찌울 것을 독자들에게 권한다.

출판저널

1994년 6월 20일 제151호
격주간·매월 5, 20일 발행

THE KOREAN PUBLISHING JOURNAL, biweekly

표지인물 2 한국문화의 현재 진단과 미래 설계
「문화설계의 심리학」 펴낸 차재호교수

현장취재 4 저작권인식 비로소 넓어지고 깊어진다 — 최태원
시장개방 앞두고 필요성 절감…각종 세미나 등 성황

리뷰 6 책으로 조명하는 한국전쟁의 실상 — 김기태
'전쟁기원론' 일색서 논의의 폭 다양해지는 추세

초점 8 새 우편제도 출판사 부담가중 우려 크다
우편물 종별 구분 없애 우송료 인상될듯

서평 10 손승철「조선시대 한일관계사연구」— 이원순
한상범「한국의 법문화와 일본제국주의의 잔재」— 홍순형
11 한승수「경제정책론」— 김윤환
12 김대용「조선초기교육의 사회사적 연구」— 차석기
류영익 외「한국인의 대미인식」— 이호재

출판시론 13 오히려 다시 시작해야 할 시의 잔치 — 한원균
「서른, 잔치는 끝났다」를 보는 몇가지 관점

화제의 책 14 사라져가는 것들을 향한 애틋한 향수
윤주영 사진집「탄광촌 사람들」

초대석 15 "책도 작품처럼 만들면 늘 살아 움직인다"
디자인도서 등 미술출판의 처녀림 일궈온 미진사

집중취재 16 직장인 위한 권장도서목록 어떤 것 있나
대기업 문체부 등서 책읽기프로그램 마련

이 책 그 사람 20 「난쟁이나라의 국경일」 펴낸 오수연씨
20 「거꾸로 달리는 한국의 운전문화」 낸 전국진씨
21 「순간을 예술로」 펴낸 이태연씨
「만화보기와 만화읽기」 낸 정준영씨

세계의 책 24 번방지대로 밀려난 미국대학의 종교교육 — 배병삼
조지 마스덴 지음「미국대학의 정신」

22 독자서평
26 화제의 신간
28 신간안내
36 200자 안내
38 신간목록
47 출판계 뉴스
48 재미있는 책이야기/정기구독 안내

표지사진/김홍진

알립니다

「출판저널」의 지면구성이 창간 7주년을 맞는 제153호(94. 7. 20)부터 일부 조정됩니다. 더 많은 책을 더 꼼꼼히 소개하기 위해 '신간안내' 및 '200자 안내'란이 종전보다 늘어나며, 정기간행물 주요목차 소개에도 따로 지면이 할애됩니다. 이에따라, 출판협회 납본도서목록을 정리해 싣던 '신간목록'란이 없어지게 되오니, 도서목록이 꼭 필요하신 분은 출판협회가 발행하는「출판문화」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